

운수남자 구도열정 찬불가 음율로

찬불음반 <천년의 향기>퍼낸 청주 관음사 주지 합현 스님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보다 즐겁고, 함께 할 수 있는 불교를 원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 불교 또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가장 감지되는 분야는 바로 불교음악이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감미로운 음율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호수처럼 다가온다.

청주 관음사 주지 합현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십 년간 수행해온 구상 수좌다. 이런 스님이 시대변화에 맞춰 불교음악을 펴내 화제다. 합현 스님이 발간한 '천년의 향기'

음반에는 불교계 작곡가들이 스님이 지은 가사에 곡을 붙였다.

'천년의 향기' 속 두 장의 CD와 악보집에는 25곡이 담겨 있다. 첫 번째 CD는 국악과 클래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합현 스님이 작사한 '부처님 오셨네'를 비롯해 '발원(發願)' '부처님과 함께 새해를' '참 좋은 인연(因緣)입니다' '불소식' '불바람' '어머니 관음(觀音)이여' '마하반야바라밀' '기도(祈禱)' '그렇게 오신님' 등 10곡이 실렸다. 두 번째 CD는 트로트와 대중가요에 가까운 찬불가로 구성되었다. '인연(因緣)의 끈' '돌고 돌며 백백염주(百八念珠)' '모두 함께 춤을' '그리운 어머니' '가를 무상(無常)' '칠석(七夕)' '무상(無常)하네' '강녕(康寧)하소서' '백중(百中)' '산에 살며' 등 10곡이 수록됐다.

악보집은 악보 25곡과 피아노 반주와 MR로 된 2장의 CD로 구성해 사찰 합창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삼 손 글이 가사의 씨앗

음반집의 가사는 스님이 수행 중 틈틈이 쓴 글이 씨앗이 됐다. 스님의 선방에서 스님이 좋은 글을 써 놓은 걸게글을 본 박성규 작곡가가 작사를 권유해 음반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여기에 김대성·김동환·유수웅·강주현 씨 등 작곡가와 박성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허철영·김혜정·

전명진·최현진·박성영·조혁준·박규리·김희영·차현호·김태근·조혁준·권기덕·권혜경 등 불교 음악인이 대거 동참했다. 사실 스님의 음악을 통한 포교는 이미 불교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스님은 지난해 11월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개최해 음악을 통한 포교를 시작했다.

김대성 작곡가는 "스님의 가사가 점점 운율에 맞게 변해 곡을 붙이기 쉬웠다"고 했다. 유수웅 작곡가는 "다른 가사와 달리 깊이와 힘이 느껴졌다"고 평했다.

시대 아픔 치유하는 법음(法音)으로

"부처님 오셨네 부처님 오셨네~ 쌓인 눈 녹이는 봄별이런가. 굳은 몸 열은 마음 비취주시사~ 재앙도 병고도 녹여주시네." ('부처님 오셨네' 中)

음반집 속에서 합현 스님은 "이번 음반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노래하다 보면 태풍이 부들 끝에서 생겨나듯 큰 지혜가 삶 속에 피어날 것"이라는 합현 스님은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보시이며 공양"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인도에서 공부할 때 악기 없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인도 사람들을 보며 불교 음악도 쉽게 만들면 부처님 법을 쉽게 접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참선수행이 수승하지만 부처님은 대중 눈높이에 맞춰 방편을 선택하셨죠.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불법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악인 것입니다."

이번 음반과 악보집은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에 보시된다. 합창단과 음악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무조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미 조계계 중흥교구에 악보집 400부와 음반 1000개가 전달된 상태다.

부처님의 향기를 음율에 담아 대중들에게 전할 생각에 스님의 표정은 밝지만 한다. "소리 소리가 관음이요, 걸음걸음이 보현의 걸음입니다. 문수는 답을 품고, 대세지는 비파를 타니, 이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합현 스님

"흙 매개체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정운 스님의 첫 전시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피고지는 저 순백함에 인생은 정답이 없다. 하지만 뱃속까지 중물이 든 이 세월은 어찌할까.'

새 하얀 도자기를 만지는 손길 속에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시 한편이 덧붙여진다.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을 여는 충남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의 모습에서 곳곳한 수행자의 품모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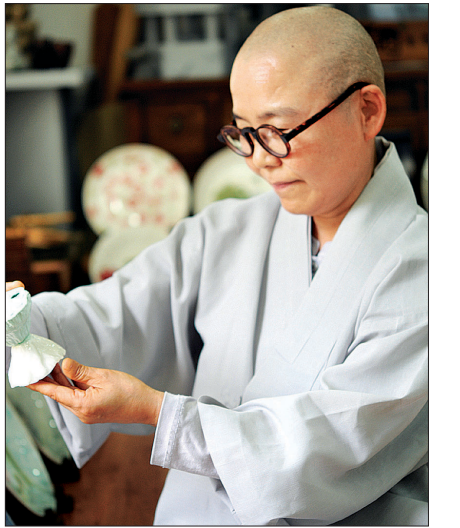
10월 17~26일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첫 도예전을 여는 정운 스님(사진)은 20여년 동안 도예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1975년 석남사로 입산, 운문사 강원과 내원사 선원, 중앙승가대를 거쳐 해전대 도예과, 군산대 산업도예과 등을 거쳤다. 제 37회 충남미술대전에서 입선하고 2004년 전남 무등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다.

출가 이후 도예가로서의 삶에 대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가꾸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한다.

스님은 "흙을 만지고 성형하는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며 "1250도라는 고온에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새로 태어난 도자기들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각기 가진 본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행자의 여정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는 정운 스님. 스님은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갈무리 된 모양의 결정체"라고 정의한다.

보령시 청소년교화연합회, 세원사청 문화육성회,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등 청소년 포교전문가로도 손꼽히는 정운 스님은 30년간 불사를 통해 세운사를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사진 위)과 대표작 '목탁'

청소년포교의 구심점으로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문화포교의 중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불사를 꿈꾸고 있다.

"도예가라는 이름을 얻기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40여 년 동안 수행자라는 모습으로 살아 온 그 본연의 자제로 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010)5429-1434 노덕현 기자

28회 불미전 대상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대회 운영위 10월 8일 결과 발표 12월 1일 시상식... 8일까지 관람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인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대상 수상작으로 김경미 씨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가 선정됐다.

불미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자승)는 10월 8일 대회 최종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불미전 수상작품은 총 51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1점, 입선 28점이다.

대상에는 회화부문 김경미 씨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1~7'을 비롯해 △ 최우수상 조각부문 박경원 씨의 '석조미륵 보살반가사유상', 공예부문 영정 씨의 '운홍사 관음보살도', △ 우수상 회화부문 일오 스님의 '보경사 괘불', 조각부문 김평기



불미전 대상 수상작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씨의 '문', 공예부문 정춘식 씨의 '업경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운영된 작품 규격에 대한 제한을 해지해 이전 대회보다 30%가 증가한 총 14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인장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12월 1~8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1970년을 시작으로 45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인쇄 문화의 꽃, 일본서 선보이다

고판화박물관 11월 20일까지 일본 도쿄 전시실서 명품전 개최

오래된 판화 속에는 그 시대의 문화가 있다. 인쇄와 회화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판화는 '인쇄문화의 꽃'으로 당시 시대상을 대변한다. 한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한국 고판화가 일본 동경에서 대거 선보인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양국 우호를 다지는 의미에서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은 10월 13일 일본 도쿄 국립국립박물관 전시실에서 '한국고판화 박물관 명품전'을 개막했다. 전시전은 1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고교부와 문화재단, 일본 문화과학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전에는 한국 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 명주사판 불설아미타경을 비롯해 고려시대까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출품된 '불설아미타경'

의 한국 고판화 명품 70여점과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의 판화 40여점이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강원도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문화재단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고판화박물관 명품 110여 점을 선별해 최초로 일본에 한국 고판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이다.

특히 이번 전시전에는 불교 고판화가 대거 공개됐다. 해인사 대장경 변상도를 비롯해, 시왕변상도, 고려법화경변상도와 조선 초기 현존하는 유일본인 불정심다라니경, 능엄경변상도, 조선 최고의 변상도중 하나로 꼽히는 정희대왕대비 발원 법화경 변상도 등이다. 노덕현 기자

易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기> 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대한민국 역학고수 총 집결! 동양역학, 명리 풍수 관상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권위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제1기 동양역학 최고위과정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이 시대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역학 전문가,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진: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 백운산 한국역술인협회장, 학선 유래웅 고령기문화회장, 박영창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백운암 노성순교수, 박정화 청화학술원장, 최명우 현공공수지리연구소장, 창광 김성태원장,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대학교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서경대 김인순교수, 충청대 남정 권오연교수 외

- 대 상 : 역학자, 명리학 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 (학력무관)
- 일 정 : 1학기 과정(15주), 10월 19일부터 매주 월(月) 18:40 ~ 21:30
- 수강료 : 18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275629 (예금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특 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자격증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문화관광부 등록)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선정릉역 2번 출구 (지하철 9호선 / 분당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문의 02-3443-4984 www.gfca.kr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 공명집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0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분) www.shcandle.com